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3. 4.(월) 지방시대 민생토론회 종료 시부터
(배포즉시 / 3. 5. 조간)

배포

2024. 3. 4.(월) 09:00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대구경북 신공항, 공공기관과 민간이 손잡고 건설토록 국가가 지원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판교에 버금가게 육성
대구의 미래 먹거리,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에 정부 집중 투자
대구 동성로, 청년과 외국인이 찾는 국제적 관광특구로 육성**

정부는 3.4.(월) 경북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개최하였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대구가 혁신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거점이자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하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대구 시민들과 관계부처 담당자간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 ❶ 첨단산업과 新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도시
- ❷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
- ❸ 시민이 건강한 親환경 도시

1 첨단산업과 新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도시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국토교통부)

□ 추진 방향

대구시는 도심에 위치하여 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저해하는 대구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신청하였고, 국방부가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을 이전부지로 선정하여 K-2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민·군 통합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신공항은 민·군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로, 민간공항은 '60년 기준 여객 1,226만명, 화물 21.8만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게 되고, 3,50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춰 중·장거리 노선 취항도 가능해진다. 신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공항철도 등 교통망 구축도 함께 추진하여 중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시설 계획 >



구분		現 대구공항		⇒	통합신공항	
		규모	비고		규모	비고
· 부지면적		753만㎡ (228만평)			1,782만㎡ (540만평)	
- 민간공항		17만㎡ (5만평)			92만㎡ (28만평)	
· 수요	여객	467만명 ('19년)	국제선 260만		1,226만명 ('60년)	국제선 906만
	화물	0.3만톤 ('19년)			21.8만톤 ('60년)	-
· 터미널	여객	2.7만㎡			10.2만㎡	(3.8배)
	화물	844㎡			1.0만㎡	(11.9배)
· 계류장		5.1만㎡	동시주기능력 11대		29.6만㎡	동시주기능력 26대
· 활주로		L = 2,755m (1本)			L = 3,500m (1本)	
		L = 2,743m (1本)			L = 2,744m (1本)	

□ 추진 현황 및 계획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22.8)한 이후 '23.11월에는 국방부-대구시 간에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사업자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민간공항 건설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23.8)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23.10)하고, '23.12월 부터 민항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1) (군공항 이전사업) 대구시에서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인(SPC)을 설립하여 기부대양여 사업 절차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추진 하게 된다. 대구시는 공항 이전 후 종전 대구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과 명품 주거문화 복합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금년 상반기 중 SPC 구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협의 중이며, 참여기관이 구성되면 협약 체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 (민간공항 이전사업) 국토교통부는 중남부권 거점공항으로서 경제물류 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중립·스마트 공항으로 계획한다는 복안이다. '24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하게 된다.

②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 추진 방향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는 동대구와 군위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총 연장 25.3km의 고속도로로서, 대구 동남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까지의 소요 시간을 15분 이상 단축시키는 등 공항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특히 군위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고속도로는 현재 대구시에서 조속한 개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 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개항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대구시는 '23.4월부터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의 경제성·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3.11월에 해당 용역의 결과로 사업의 경제성($B/C=1.29$) 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 대구시는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사업자→국토교통부),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KDI)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③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 배경

산업부는 지난 1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4~'28)'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AI)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하여 로봇을 활용한 新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이다.

로봇을 가장 잘 만들고, 잘 활용하는 K-Robot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로봇 3대(기술, 인력, 기업)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사회·수출을 통해

K-Robot을 전면 확산하며, 개발 단계의 로봇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로 이어가기 위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는 등 로봇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봇산업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로봇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나, 새로운 서비스인 만큼 충분한 실증을 통해 사업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고도화된 로봇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로봇 실증 인프라가 부족하고 규제로 막혀 실증 자체가 불가하거나 실증 비용도 부담이다. 실증 데이터 및 결과물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로봇업계는 국가 주도의 실증 인프라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로봇업계의 숙원 사업인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되어 의의가 깊다.

정부는 실증 관련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검토·기획하였고, 지역 공모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및 지원의사를 밝힌 대구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대구시는 국내 유일의 로봇 지원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2010년에 유치하였고, 그간 시 차원의 로봇산업 투자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또한 ▲연구인프라(한국기계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교육인프라(경북대학교, DIGST 등), ▲로봇산업 전·후방기업(현대로보틱스 등 230여 개 로봇기업 및 금속가공·기계·전자부품 산업군 밀집)이 집적되어 K-로봇 경제의 거점 도시로서의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지역이다.

□ 추진 방향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로봇의 업무 수행능력, 내구성, 안전성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로봇 실증평가 기반시설로 5년간('24~'28년) 총사업비 1,998억원을 투자하여 대구 달성군에 166,973㎡(약 50,509평) 규모로 구축 예정이다.

물류, 상업, 생활, 실외주행 등 실제 환경을 유사하게 모사하여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한 가상환경 실증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 환경 및 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업은 로봇의 현장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상·실환경에서 사전적으로 포착·개선함으로써 로봇의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조감도 및 주요시설물>



□ 기대 효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실증평가 시스템을 확보하고, 로봇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인증을 주도하여 로봇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대구시의 글로벌 로봇도시 도약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효과 3,895억원, 고용유발효과 928.4명으로 예상(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3.8월)

최근 대구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인근에 국내 로봇기업의 이전 및 투자 협약 중이며, 이로써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봇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대구가 중심 축인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GRC, 26개국 32개협회 참여)와 연계하여 세계 최고의 실증연구시설로 활용될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글로벌 첨단로봇 시장 확대와 국가간 로봇산업 육성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 로봇산업이 적기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에 523억원, 간병로봇 등 첨단로봇 보급 확산에 647억원을 투자한다.

감속기, 서보모터, 제어기, 센서, 그립퍼, 자율조작, 자율이동,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등 8대 첨단로봇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④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 배경

디지털은 미래 경제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판교, 강남 등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고밀도로 분포하며 이른바 디지털 산업 입지의 남방한계선을 형성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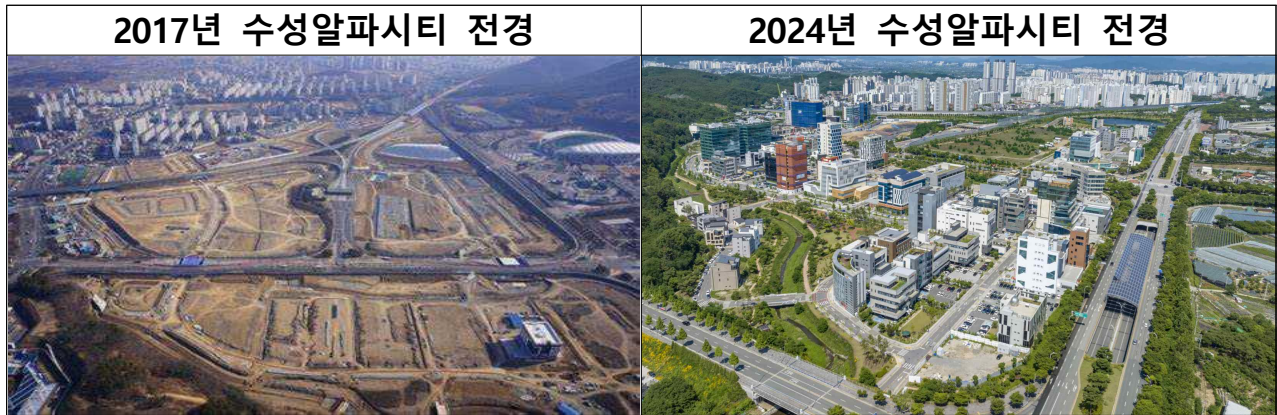
정부는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내 주요 입지를 선정하여 디지털 기업·인재가 집적되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성장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갖추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투입하여, 비수도권에도 디지털 신산업의 허브이자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진기지로 기능하는 혁신거점을 육성한다는 목표이다.

□ 대구 수성알파시티 조성 경과

대구 수성알파시티는 2014년까지는 수성구 외곽의 포도밭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비수도권 최대의 디지털(SW) 기업 집적지로 성장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들이 “포도밭의 기적”이라 얘기할만큼 10여년 만에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2014년부터 SW융합기술고도화사업(총 사업비 977억원) 추진을 통해 2017년에 첫 앵커시설(SW융합기술지원센터)을 완공하였으며, 정부와 대구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9년 44개 디지털 기업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43개 디지털 기업이 입주를 확정하였다.





□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 추진

정부는 다수의 디지털 기업이 이미 집적되어 있으며, 지방 거점대학 및 영남권 주요 국가산단과 높은 접근성을 가진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한다. 제조혁신에 특화하여 수도권과 차별화된 디지털 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영남권 제조벨트 디지털 전환의 전진기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 시범사업) 우선 2023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연 21억원)을 추진 중으로, 2023년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경북대·포항공대·계명대 4개 대학 7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연구센터를 수성알파시티 내로 유치하였다. 수성알파시티 내에 디지털 기업과 지방대학 간 긴밀한 산학 협력 체계가 갖춰지도록 하는 것을 시범사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2단계 : 본사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연구개발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대형 사업계획을 대구시와 함께 수립 중이다. 우수 연구시설 구축, 대형 연구개발과제 등을 유인체제로 국내외 우수 연구팀을 수성알파시티로 유치하는 것이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대구시는 본사업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국내·외 우수 연구자*들의 사업 참여의향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DGIST와 대학원 중심 제2캠퍼스((가칭)ABB 글로벌 캠퍼스) 건립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대구시는 구체적인 본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범정부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IBM, 하버드 의대, 스탠포드 등 14개 기관 소속 해외연구자 참여의향서 확보

(민간투자 및 정주여건) 대구시와 SK 컨소시엄은 작년 12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 등 본사업과 연계된 약 8천억원 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 하였다. 아울러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 인근에 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정주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쇼핑몰, 지하철역, 아파트 단지 등 도심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SK 컨소시엄(SK리츠운용, SK C&C, 아토리서치)은 대구시와 AI 데이터센터, R&D 센터 등 관련 투자 협약('23.12)



* 그림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확정되지 않은 계획도 일부 포함됨

□ 기대 효과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본격 조성하여 2031년까지 디지털 기업 1,000개와 2만명의 상주인력이 집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디지털 기업과 청년인재가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일터가 지역에도 마련될 것이다. 또한 전국 제조업 매출액의 38%를 차지하는 영남권 제조벨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지역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기회발전특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 현황

정부는 대규모 지방투자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추진 중이며, '23.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이후, 당시 발표된 기회발전특구 세제·재정 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고시 등)에 대한 개정을 완료하는 등 인센티브 기반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해왔다.

- * 기회발전특구 지정근거가 포함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시행('23.7월),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등이 포함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23.11월)

□ 추진 계획

현재 각 지방정부는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기업의 투자계획, 산업육성전략,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필요한 규제특례 사항 등 포함)을 수립하는 등 지정신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산업부 고시(「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가 관계부처 협의, 행정예고를 마치고 오늘(3.4일)부터 시행된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확대되고 청년들이 찾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통해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기회발전특구가 지방투자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② 청년들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

①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 방향

대구시는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동성로’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근대 골목과 먹거리, 쇼핑, 체험 등 동성로의 지역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상품화하여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을 원하는 시·도지사는 정부에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정부에 사전협의 신청 시 정부는 조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 지정요건 : ① 외국인 관광객 수(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 서울은 50만명) ② 관광 인프라(안내, 숙박 등) ③ 토지비율(非관광 목적 토지 10% 이하) ④ 지구 분리 금지

** 지정절차 : 시·군·구의 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가 문체부와 사전 협의 (30일 이내 협의 의견 통보) → 시·도지사가 관광특구로 지정

□ 추진 현황 및 계획

대구시는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동성로 일대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글로벌 쇼핑관광지로 조성하고자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관광특구 지정에 앞서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 관광·문화·예술·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성로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심을 만들기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 버스킹, 청년문화 부흥(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 청년 아지트 만들기, 공실임대 디지털 플랫폼), 감성 노천 카페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등

정부는 대구시와 함께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MZ세대를 겨냥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연계하는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청년 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여행로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교통서비스와 쇼핑 관광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 및 다양한 결제방식 등을 구축하고,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에 기반한 매력적인 체험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관광 콘텐츠 상품화를 위해 동성로 인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서문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등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성로 관광특구 후보지 주요 현황

- (위치) 중구 동성로 및 약령시 주변 일대
- (면적) 1.16km²
- (주요지점)
 - 상가시설 :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 쇼핑점, 교동시장, 염매시장, 향촌동 수제화 거리, 주얼리·패션거리, 로데오 거리, 북성로 공구거리 등 로드샵 7,000 여개
 - 공원시설 : 2.28기념중앙공원, 경상감영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문화시설 : 향촌문화관, 대구문학관, 대구 근대역사관,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이상화·서상돈 고택,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등
 - 숙박시설 : 엘디스 리젠트 호텔, 토요코인 호텔 동성로점, 호텔 노블스테이 등
 - 휴양오락 및 접객시설 : 박물관, 유원시설, 공연장 등 22개소
 -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축제·이벤트·체험·투어 프로그램 등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정권자인 대구시가 조속히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외에서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② 문화예술허브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 방향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구지역에 국립미술관, 국립뮤지컬컴플렉스 등이 들어서 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미술관은 한국미술의 전시 기능을 기본으로 미술사 연구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국립뮤지컬컴플렉스는 뮤지컬 문화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과 K-뮤지컬을 생산·유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구지역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이 완료되면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국가보훈부)

□ 추진 방향

대구는 국권회복운동의 한 획을 그은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며,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곳이다. 또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운동인 ‘대구 2.28민주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 대구지역 구국의 역사

(독립) 국채보상운동(1907), 대한광복회 최초 결성지(1915)

(호국) 6.25전쟁 낙동강 방어선 전투(1950)

(민주) 대한민국 최초 민주운동인 2.28 민주운동(1960)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위기마다 구국의 정신을 발휘했던 대구지역에 국가 기념시설을 조성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개요 (대구시 요청내용)

- (위치/면적) 중구 대신동 일대
- (사업기간) 2025 ~ 2030년
- (총사업비) 약 2,530억원(기념관, 공원 조성, 주차장 및 기타 부대시설 포함)
- (사업내용) 구국운동기념관 및 공원 조성

□ 추진 현황 및 계획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기념시설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제반여건을 분석하고 기념시설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④ 지구촌 새마을운동(새마을ODA) (행정안전부)

□ 추진 방향

대한민국 근대화의 기반이 된 새마을운동과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저개발 국가들에 전파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국가 발전의 동력을 제공한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행정안전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2009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전파하여, 각국으로부터 지역사회 발전에 유용한 개발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2013년 유네스코에서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으며,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 및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새마을운동을 ‘新 농촌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지난해까지 74개국 1만3천여명의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고, 22개국 104개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등 저개발국가 주민·지역사회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수원국 내 새마을운동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우간다의 경우 2009년 2개 마을에서 출발한 새마을사업이 2021년에는 15개 마을로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마을이 지난해에는 360개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8년에는 한 마을(브와물라미라)에서 30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새마을금고가 1만2천여명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급성장하여, 소외주민들에게 금융의 문턱을 낮춰주는 성공사례로 자리잡았다.

그 밖에도, 베트남 호치민(Ho Chi Minh)대학,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Bangui)대학에서는 새마을연구소를 설립하여 농업정책과 농산품의 생산과 경영, 스마트농업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농촌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스리랑카(내무부)에서는 새마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국가변혁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2023년에는 3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처음 개최하여 각국 정부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2024년에는 국가별 실정에 맞는 새마을교육 실천을 위해 우간다(아프리카)와 캄보디아(아시아)를 대륙별 거점국가로 지정하여, 현지연수원에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교육을 강화한다. 향후 점진적으로 중남미·중앙아시아·태평양도서국 등 대륙별 거점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청년 미래 새마을운동, 온종일 완전돌봄 마을 등으로 새마을운동의 저변을 다각화하고, 초청연수와 시범마을 확대를 통해 저개발국가의 우수한 인재들을 새마을지도자로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개혁(’49년~) 사례와 자유민주주의 경험·가치를 새마을운동에 접목시켜 저개발국이 빠른 시일내에 대한민국과 같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맞춤형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을 통해 국정 목표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새마을운동이 글로벌 온기나눔 활동 차원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대 효과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인 새마을운동이 한류(K-컬처),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및 기업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으로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경제기반을 넓히고, 국가위상 제고와 더불어 국민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⑤ 지역 공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부)

□ 추진 방향

대구는 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학생 개개인이 맞춤형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IB 프로그램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탐구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산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대구는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동시에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강동고, 경북여고, 군위고, 다사고, 포산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을 신청하여 5개 학교 모두 선정되었다. 해당 학교는 올해부터 5년간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어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지자체, 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 학교의 상황·특성·요구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각 학교는 매년 2억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고,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교사 정원의 100% 초빙 허용,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와 협약기관이 지향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완화 수요도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19년부터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IB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IB 교육지원센터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또한 대구 내 IB 도입을 희망하는 학교와 지역에 설명회, 멘토링,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하여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 대구 IB 도입 운영 총 94교 : 준비학교 53교, 관심학교 9교, 후보학교 11교, 인증학교 21교 ('24.1.기준)

□ 기대 효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5개 학교가 우수한 교육모델을 창출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지역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여건의 개선이 정주여건 개선으로 연결되고, 지역이 맞이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⑥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통한 중증·응급의료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 추진 방향

거점 국립대병원은 각종 필수의료 센터들을 운영하는 등 지역의 의료 책임을 지는 핵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거점병원으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2023년 10월 발표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 중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먼저 거점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우수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인건비 등 관련 규제도 개선 중이다.

국립대병원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부 투자도 확대 중이다. 국립대병원 시설·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해 '23년(788억원) 대비 41% 증가한 1,114억원을 '24년에 지원하며,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주요병원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치료 역량이 보다 진일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의료와 접목하는 도전적·혁신적 R&D도 대폭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정책을 의료기관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통해 거주지역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 접근성이 보다 개선되어 환자들은 수도권 병원을 찾지 않아도 인근 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3 시민이 건강한 親환경 도시

1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환경부)

□ 추진 배경

대구·경북지역의 진산(鎭山) 팔공산이 올해 1월 1일부터 23번째 국립공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은 2012년에 한 차례 무산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대구·경북 시민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환경부는 향후 5년간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노후화된 시설들을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팔공산의 우수한 자연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고, 이를 통해 탐방객이 늘어나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

1) (노후시설 개선) 팔공산이 가진 자연생태·문화자원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후화된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은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2) (생태관광 활성화)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팔공산을 둘러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야영장, 자연학습장 등이 조성되며, 이를 통해 팔공산 정상에 오르지 않고도 저지대에서 국립공원의 혜택을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기준 마을 평균소득이 조성 전 대비 4.8배, 마을 방문객은 1.3배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던 사업이다. 팔공산 명품마을 조성사업 역시 국립공원이라는 청정 브랜드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건의를 바탕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이에 다양한 지역 특산물이 더해져 지역주민의 소득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

4) (재난안전관리 강화) 국립공원시 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재난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탐방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② 서·북부 악취문제 해소 (환경부)

□ 추진 배경

대구 서구 도심산단 인근 평리뉴타운은 지난해부터 7,0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주거지로 곧 13,000세대의 신도시로 만들어질 예정이나, 과거부터 이어온 하수 악취, 탄내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한 원인은 1980년대부터 있었던 인근 염색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환경부는 지난 2020년에 실시한 악취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악취 방지시설 개선사업, 백연 저감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은 여전한 실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악취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염색산단을 2030년까지 이전시킬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기대효과

1) (악취방지시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악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주요한 원인으로 산단 내 노후화된 악취 방지시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그간 대구시와 함께 서구지역 총 135개 사업장에 534억원을 투입하여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악취 원인물질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여전히 원인 불명의 악취 문제가 잔존하고 있는 만큼 노후 방지시설 추가 교체, 악취 모니터링 확대,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악취 저감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 (하수관로 관리) 악취의 또 다른 원인은 노후 오수관로에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관로 교체 및 우수·오수관 분류화 사업 등 시설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환경부는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대구시를 ‘스마트 하수 악취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주요 악취 발생지점에 저감시설 설치 및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이후에는 악취 저감 및 주민 생활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 당 자	총괄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	책임자	과장	고상미	044-251-3105
			담당자	사무관	박이용	044-251-3152
	첨단산업과 新公항으로 부상하는 혁신도시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책임자	서기관	박태진	044-201-5215
			담당자	사무관	곽희종	044-201-5212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책임자	과장	박문수	044-201-3897
			담당자	사무관	이기세	044-201-3898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책임자	과장	조웅환	044-203-4310
			담당자	주무관	이세현	044-203-4315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성진	(044-203-4420)
			담당자	사무관	최선헌	(044-203-44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책임자	과장	장두원	044-202-6330
			담당자	사무관	정재현	044-202-6333
	청년들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책임자	과장	김은희	044-203-2841
			담당자	사무관	김영미	044-203-284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장	책임자	과장	이승재	044-203-2651
			담당자	사무관	김진현	02-3771-8645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	책임자	과장	강병구	044-202-5570
			담당자	사무관	김선도	044-202-5573
		행정안전부 새마을발전협력과	책임자	과장	임완배	044-205-3461
			담당자	사무관	이호현	044-205-3466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책임자	과장	유상범	044-203-6682
			담당자	사무관	임동우	044-203-6688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책임자	과장	김지연	044-202-2530
			담당자	사무관	배기현	044-202-2533
	시민이 건강한 親환경 도시	환경부 환경개혁TF	책임자	부팀장	김보미	044-201-6328
			담당자	사무관	김찬웅	044-201-6347
		환경부 자연공원과	책임자	과 장	이창규	044-201-7316
			담당자	사무관	김정선	044-201-7314
		환경부 대기관리과	책임자	과장	장현정	044-201-6900
			담당자	사무관	한상윤	044-201-6907
		환경부 생활하수과	책임자	과장	윤태근	044-201-7020
			담당자	사무관	성연주	044-201-7025

1-1 대구경북통합신공항**Q.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민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 사례로, 군공항 건설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대구시가, 민간공항 건설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부가 추진 중
 - '23.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제정('23.8월 시행) 이후, 민간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23.10월)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23.12월~, 1년간)을 추진 중임
 - 군공항은 '23.11월 국방부-대구시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대구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정하고, 현재 대구시가 사업대행자(SPC) 구성을 추진 중임
- 민항 건설사업은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5년에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 군공항 건설사업과 일정을 맞춰 개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

Q. 대구시 사업대행자(SPC) 구성을 위한 공공기관 참여는?

- ☐ 대구시는 군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대행할 SPC 설립을 추진 중
-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제14조에 따르면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공공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대구시는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 함께 도시개발과 공항개발에 전문성을 지닌 LH와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며, 민간참여자를 위한 공모계획도 마련 중임

①-②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Q.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관련 향후 계획은?

- ☐ 현재 대구시가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의 경제성·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 중에 있으며, 민간 사업자가 정해지면 이를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
- ☐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특히, 민간사업과 관련한 법정절차인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①-③ 국가로봇테스트필드

Q.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은?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2023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상세기획 과정을 거쳐 2024년 2월 사업공고가 완료되었음
 - 사업관리기관이 3월 중 총괄수행기관 및 수행기관 평가과정을 거쳐 4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며, 2028년까지 추진 예정
- 2024년~2025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증 시설을 설계하고, 2026년까지 주요 실증연구 시설물 준공을 완료한 후,
 - 2027년 시범운영을 통해 2028년 본격 실증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임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주요 추진 일정 >

- * (건축설계) 설계공모('24.4~9) → 기본·실시설계('24.10~'25.10)
- * (건축공사) 시공사 선정 및 착공('25.11) → 준공('26.12)

①-④ 대구 수성알파시티

Q.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현실성 있는 목표인지?

- 대구 수성알파시티는 '14년 970억원의 정부 투자로 시작하여, 현재 243개 SW기업이 입주를 확정된 비수도권 최대의 SW기업 집적지로 성장 중임
 - DGIST·경북대·포항공대·계명대 등과 높은 수준의 산학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전환 수요처인 영남권 주요 국가산단과의 접근성이 좋아 디지털 생태계 거점으로서 우수한 입지 조건임

- 아울러 DGIST의 대학원 중심 제2캠퍼스((가칭)ABB 글로벌 캠퍼스) 구축도 논의 중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기능도 갖출 예정

- 대구시의 장기적인 비전하에 정부가 충분한 지원 노력을 기울인다면, 향후 지방시대의 랜드마크로 성장 가능할 것임

1-6 기회발전특구

Q.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향후 추진 일정은?

-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의 일률적인 공모일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 가능함

* (지정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및 특구계획 수립 → 산업부에 지정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 산업부 장관이 지정

- 현재 각 지방정부는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 중임

- 관련 지침이 오늘(3.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비된 지방정부의 지정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시행(3.4~)

2-1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Q. 관광특구 지정 효과는?

□ 대구 동성로는 약령시, 전통시장, 근대골목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고, 뷰티·패션·보석·기념품 등 쇼핑과 숙박, 먹거리, 사후면세 특화거리 등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

○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구시가 동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상품화하여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 국내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래관광객 유치 등 대구관광활성화를 통해 고용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관광특구 지정 효과 : 지역 경제상황 평균 5.5% 향상('23, 문광연 연구)

Q.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등에 규제 완화 및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사항으로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에 한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공개공지(공터) 사용,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완화, 카지노 허가 완화, 영업제한 미적용 등이 있음

○ 또한 문체부에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공모를 통해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1억원 내외)

Q. 관광특구 지정 절차는?

□ 관광특구 지정을 원하는 시·도지사는 문체부에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체부에서 외국인 관광객 수 등 법령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한달 이내 시·도지사에게 협의 의견을 통보하면 시·도지사가 관광특구를 지정**함

* 지정요건 : ① 외국인 관광객 수(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 서울은 50만명) ② 관광인프라(안내, 숙박 등) ③ 토지비율(非관광 목적 토지 10% 이하) ④ 지구 분리 금지

** 지정절차 : 시·군·구의 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가 문체부와 사전 협의(30일 이내 협의 의견 통보) → 시·도지사가 관광특구로 지정

○ 현재 대구시에서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준비 중*이며,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

* (대구시) 특구지정 연구용역 및 자료조사, 사전협의 신청(~'24.6월) → (문체부) 검토의견 통보('24.7월) → (대구시) 관광특구 지정('24.7월)

②-② 문화예술허브 조성

Q.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 현재 대구지역 문화예술 허브 조성을 위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음
 - 기획이 완료되면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Q. 문화예술 허브 조성에 관한 기획내용은?

- 국립미술관, 국립뮤지컬컴플렉스 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있음
 - 아울러 비용 산정, 편익 추정,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 기본적인 타당성도 검토됨

Q. 대구지역의 구체적인 입지는?

- 옛 경북도청 부지를 대상으로 기획이 진행되고 있음
 -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겠음

Q. 예비타당성조사제도란?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임
 -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가 정책성, 지역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세부 사업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함
 - 재정지출 500억원 이상인 문화 및 관광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며, 대구지역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2-③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Q. 국립 구국운동기념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 ☐ 대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위기마다 구국의 정신을 발휘한 역사가 이어져 온 지역임
 - 국권회복운동의 한 획을 그은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며,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곳임
 - 또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운동인 대구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함
- ☐ 국가보훈부는 구국의 정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Q. 국립 구국운동기념관이 예비타당성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 ☐ 사업의 구체성이 정해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 예비타당성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 정책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훈부와 대구시 양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보훈부와 대구시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구상 단계부터 대구시와 대구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Q. 대구만 구국의 역사가 있는지?

- 다른 지역도 구국의 역사가 있겠으나 대구의 경우 근현대사에서 터닝포인트가 된 독립-호국-민주 역사를 갖고 있음
 - 국민 대부분이 참여해 국권회복의 한 획을 그은 국채보상운동
 - 6.25 전쟁 당시, 전세 역전의 계기가 된 낙동강 방어선 전투
 -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운동인 2.28 민주운동

Q. 국립 구국운동기념관의 향후 추진 일정은?

- 국가보훈부에서 추진 중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3월에 업체를 선정하여 6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임
-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비를 추산할 수 없지만, 대구시에서 요청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24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임

2-⑤ 지역 공교육 경쟁력 강화

Q.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선정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

- 자율형 공립고 2.0의 경우 기존 자공고와 달리 지자체 뿐만 아니라 대학·기업·법인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혁신 모델을 마련·운영할 수 있음
 - 특히 협약기관과 학교가 ‘협약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협약기관이 주도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아울러, 특별교부금을 통한 재정지원(연 2억원), 자사고·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정원의 100% 교사 초빙 및 산학겸임교사 임용 등 각종 지원·특례를 적용할 예정임
 - 교육부는 대구지역의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학교 모두가 지역의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Q.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지정 이후의 관리는 ?

- 올해 선정된 학교는 ‘시범운영’ 학교로 지정되어, 컨설팅을 통해 협약내용, 교육과정을 비롯한 학교 운영 전반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지정된 학교는 5년 간 지정되고, 재지정평가 시 취소도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매년 학교 자체평가를 통해 운영실적을 점검함

Q. IB 프로그램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지?

□ IB 프로그램의 장점은 탐구·토론 중심 수업과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며, 수십 년 간 신뢰성을 인정받아 전세계 160여개국 5,600여개 초중고에서 도입 운영 중에 있음

○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IB의 수업·평가 시스템은 공교육 혁신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19~) 대구·제주 → ('23) 경기·전남 확대 → ('24) 서울·인천·충남·전북 도입 예정

Q.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지역 공교육 혁신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

□ 실제로 대구와 제주는 2019년부터 IB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공교육 혁신을 시도하고 있음

○ 수업과 평가가 연계된 교실 수업이 개선되었다는 현장 의견이 많고, 특히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모든 학교에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교육청 단위에서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일반 학교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3-① 팔공산 국립공원

Q.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의의는?

- 2013년 무등산,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7년만의 국립공원 지정으로서, 자연생태계 보전과 국민행복을 중요 가치로 삼는 현 정부의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음
- 또한, 뛰어난 자연·경관·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대구·경북의 유서 깊은 진산(鎭山) 팔공산을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음
-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Q.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 팔공산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종은 5,296종으로 23개 국립공원 중 8위 수준, 자연경관은 77개소로 7위 수준, 역사·문화자원은 92점으로 2위 수준임
 - (생태) 붉은박쥐, 수달 등 멸종위기종(15종) 포함, 5,296종 서식 [8위]
 - (경관) 갯바위 등 기암(10개소), 산봉(39개소) 포함 77개소 분포 [7위]
 - (문화) 국보 2점, 보물 25점 등 92점 분포 [2위]
 - － (국보)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제14호), 아미타여래삼존 석굴(제109호)
 - － (보물)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제243호) 등 25점

Q.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 그간 팔공산은 정삼부 능선을 따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로 이원화된 공원관리가 이뤄졌으나, 이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
- 앞으로 자연자원 모니터링, 훼손지 복원,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 문화유산지구 정비 등 팔공산의 자연·문화·역사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게 됨
- 도립공원 당시 조성되어 노후가 심한 시설의 전면적인 개선과 다양한 탐방·체험 인프라를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전후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약 1.9배 상승, 탐방객 수는 약 36%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現 358만명→486만명)

Q.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 본격적인 국립공원관리가 시작됨에 따라 노후가 심한 주차장, 화장실, 탐방로 등의 공원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 저지대를 중심으로 야영장, 자연학습장 등 다양한 탐방·체험인프라를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고품격 생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아울러, 국립공원 내 마을을 대상으로 특산물 개발과 마을 수익시설 조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명품마을’ 제도를 운영할 계획임

3-2 대구 서북부 악취 개선

Q. 평리뉴타운 악취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대책은?

- (도심산단 악취) 지난 2020년 평리뉴타운 인근 염색산업단지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후속 조치로 악취배출사업장에 악취·대기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집중 지원하였음
- (실태조사) 악취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산단내 악취배출시설 및 주변 영향을 집중 조사·분석('20년)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대구시 및 사업장에서 악취저감 조치*를 이행 중임
 - * 방지시설 개선 집중 지원(135개 사업장, 534억원),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6개소) 등 악취 모니터링 강화, 방취림 조성 등 악취 저감조치 이행 중(대구시)
- (방지시설 설치 지원)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 등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135개 사업장, 534억원)
 - * (효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7% 저감, 산단 주변 대기질 개선(초미세먼지 24% 감소) 등
- (향후계획) 대구시와 협력하여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지속 지원하고 악취 모니터링 확대, 기술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Q. 하수도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해결책은?

- 하수관로 정비·관리를 위해 하수관로 및 맨홀, 토구 등 시설개량과 관로 내 퇴적물 준설 등을 통해 하수 악취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임
- 현재 대구시 추진중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3개소(신규 5, 계속18)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6,343억원임(국비 2,224억원)

Q. 스마트 하수 악취 관리체계란?

- 악취 발생, 배출원에 대한 실시간 측정, 모니터링 및 저감사업 추진을 통한 적극적인 악취 관리 및 대응할 수 있는 체계임
- 달서천 및 서부처리구역, 신천 및 팔거천 유역 내 주요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해 발생원인, 유형 등을 파악하고,
- 악취저감시설, 계측기 설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ICT 기반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을 구축 중임

Q. 염색산업단지 이전 계획은? (대구광역시 소관)

- 지난해 12월 28일 대구광역시는 대구염색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조기 이전할 것을 발표하였음
- 기존에는 2032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이전을 실현하고자 함
- 현재,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대구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친환경 탄소 중립 산단 전환 및 고부가가치형 섬유산업 전환으로 국내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첨단섬유산업단지 조성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 산단 이전 예정지로는 군위군으로 약 50만평이 규모이며, 사업비는 5,500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추산됨
- 산단 이전으로 서·북부 지역의 염색산단 악취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1-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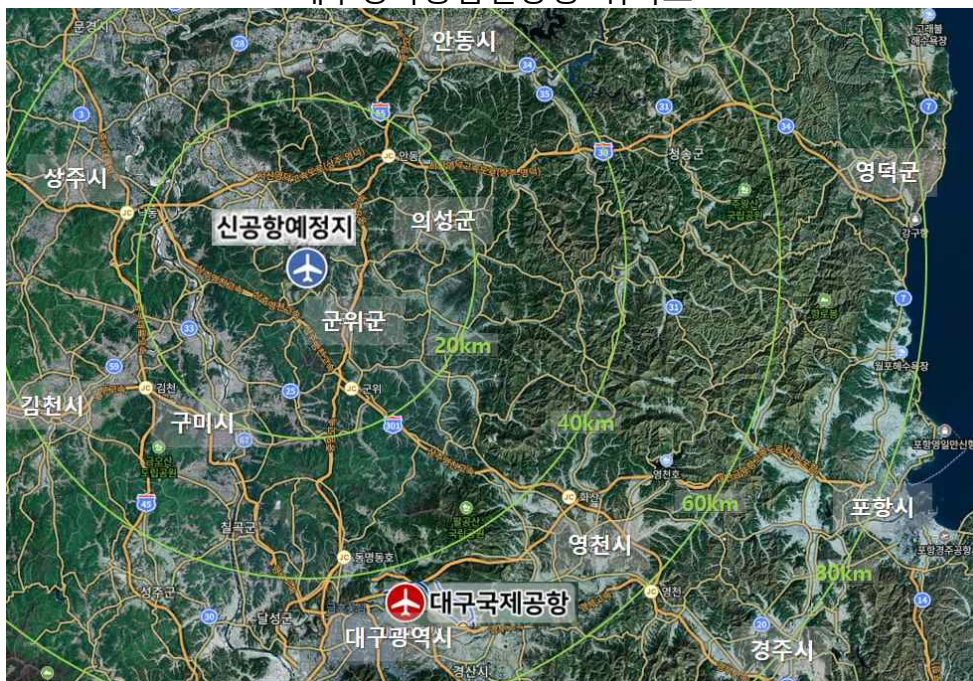
□ 사업 개요

- 대구 동구에 위치한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군위·의성군 일원으로 통합이전 추진
- 민·군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 사례로 軍공항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대구시가, 민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부가 추진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제정('23.4, 8월시행) 및 추진단 설치(法제12조, '23.9)

□ 주요 사업 내용

- **(군공항)** 16.9km²(511만평) 부지, **Airside** 활주로 2본, 계류장, 엄체호, 비행대대 등, **Landside**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작전·방호·정비·생활·복지시설 등 조성
- **(민항)** 92만 m²(28만평) 부지에 여객 1,226만명(국제 906만명, '60년기준), 화물 21.8만톤 처리가 가능한 공항 건설(추정사업비 2.6조원, B/C 1.03)
- * 여객터미널 10만m², 화물터미널 1만m², 계류장 30만m², 주차장 10만m²(약 3천면), 민항수요를 고려한 활주로 연장, 접근교통시설(도로 2개소 11.2km) 등 반영
- ※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기준, 기본계획 수립 후 확정 예정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위치도 >



1-2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 사업 개요

- (사업구간) 대구부산고속도로 동대구JC ~ 상주영천고속도로 동군위JC
- (사업규모) L=25.3Km, 4차로 신설
- (총사업비) 1조 8,5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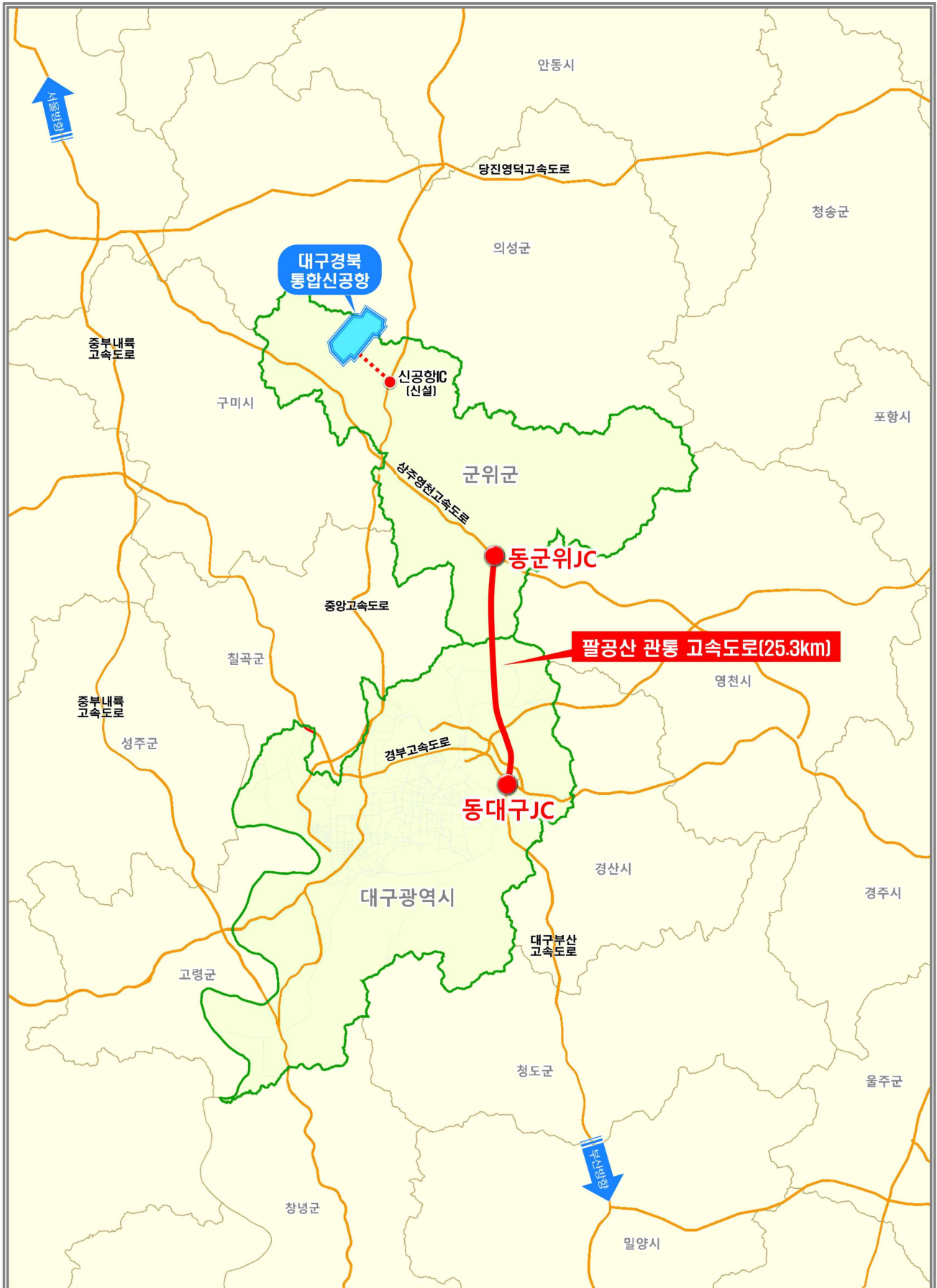
□ 사업 추진 경과

- ('23. 4)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대구시)
- ('23. 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 ('23. 8) 민간공항 사전타당성용역 결과 발표(국토부)
 - * 항공 수요 : 여객 1,226만명, 화물 21.8만톤
- ('23.11) 사전타당성 용역 중간 결과 발표(대구시, 보도자료 배포)
 - 신공항 개항, K-2 후적지 개발사업(계획 수립중) 반영시 $B/C = 1.29$
(신공항 개항만 반영시 $B/C = 1.06$)
 - * 교통량 50,294대, 연간 편익 1,817억원 등

□ 사업 필요성

- 대구경북신공항까지의 접근성 향상 및 서울↔부산간 거리 단축
 - * (대구 동남권↔신공항) 거리 13km 단축(시간 15분 단축)
 - (서울↔부산) 거리 10km 단축(시간 13분 단축)
- 동대구와 군위 지역을 직접 연결하여 균형발전에 기여

□ 위치도



1-③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실행계획

□ 추진배경

- 로봇제품 사업화를 위해서는 실증 결과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비용부담 등 호소 → 국가주도 테스트필드 마련 필요성 대두

□ 사업개요

- 개발 단계의 로봇의 신속한 비즈니스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실·가상환경에서 로봇 실증공간을 조성하고 실증서비스 제공

- ◇ (규모/기간) 1,997.5억원(국고 1,305.0억원) / '24년 ~ '28년(5년)
- ◇ (조성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365번지(면적 166,973㎡)

◇ 구축 인프라

- ▶ 실증연구·평가 인프라(8,660㎡)
- ▶ 실외 환경(30,000㎡)
- ▶ 데이터 저장·활용 인프라(2,448TB)
- ▶ 충돌압력측정센서 등 13종 장비



물류	생활	상업	실외
			

◇ 인프라 구축 로드맵

기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사진					
계획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	인프라구축	시범운용	고도화

□ 구축·실행계획

- ①신속한 부지 매입 및 조성 추진, ②~③실환경 및 가상환경 실증 서비스 제공, ④데이터 활용, BM인증 체계 구축 등

① (부지조성) 로봇산업진흥원을 실증연구인프라 구축 사업자로 지정하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확보

* 부지가격 상승을 우려, 진흥원을 사업자로 지정하여 신속 사업 추진 진행

② (실환경 실증서비스) 실제 환경을 모사한 실내·외 로봇 실증공간 구축, 로봇의 서비스품질·안전성·내구성 등 실증 기술 개발

* 물류, 상업(푸드코트, 호텔, 병원 등), 생활(주택, 사무실), 실외(도심 환경, 악천후 환경) 등

③ (가상환경 실증서비스) 디지털공간에서 로봇 모델링, 가상 실증환경 구축 및 시나리오 생성을 위한 툴 제공, 증강현실 실증 서비스*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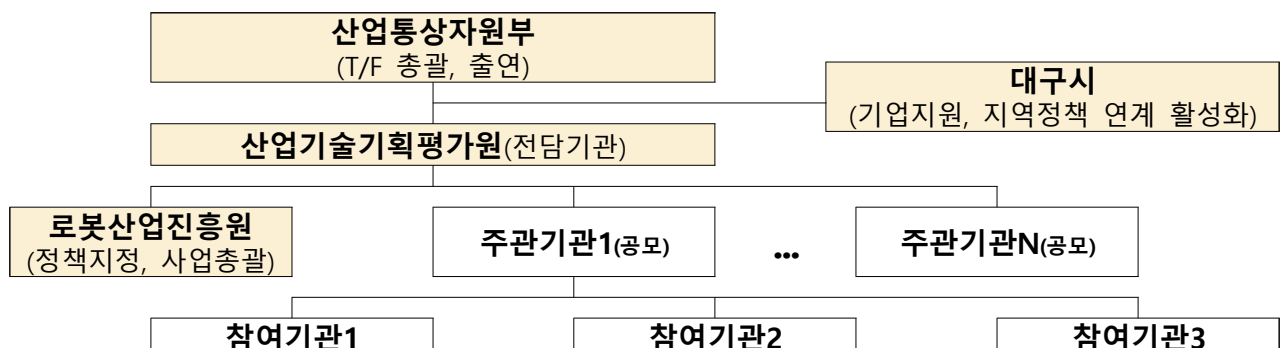
* 실제 공간에서 실증 중인 실제 로봇과 가상 로봇 간 실시간 상호작용 가능한 실증

④ (데이터 및 인증서비스) 데이터 수집·저장·처리(비식별화 등)·활용(학습 및 최적화) 서비스, 로봇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BM인증 서비스 제공

* 로봇 BM인증 : 로봇이 사업장에 투입된 이후 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내구성, 안전성의 양적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비스

□ 추진체계

- 산업부(총괄), 대구시(부지제공, 지역연계), 산기평(사업관리), 로봇산업진흥원(사업총괄, 인프라구축·운영)



< 사업개요 및 구축 시설 >

◇ 사업 개요

- ▶ (총사업비) **1,997.5억**(국비 1,305억, 대구시 520억, 민자 172.5억)
* 로봇산업 기술혁신센터 사업 비용 별도(320억원, 대구시, 달성군)
- ▶ (사업기간) '24~'28년(총 5년)
- ▶ (부지규모) **166,973m²**(약 50,509평), **대구시 달성군**
- ▶ (사업내용) 가상·실 실증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및 실증평가 기술개발
- ▶ (관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로봇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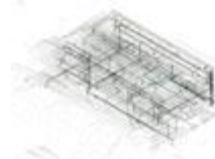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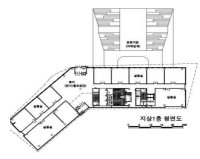
◇ 구축 인프라

- ▶ 실증연구·평가 인프라(8,660m²)
- ▶ 실외 환경(30,000m²)
- ▶ 데이터 저장·활용 인프라(2,448TB)
- ▶ 충돌압력측정센서 등 13종 장비



물류	생활	상업	실외
			

◇ 인프라 구축 로드맵

기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사진					
계획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	인프라구축	시범운용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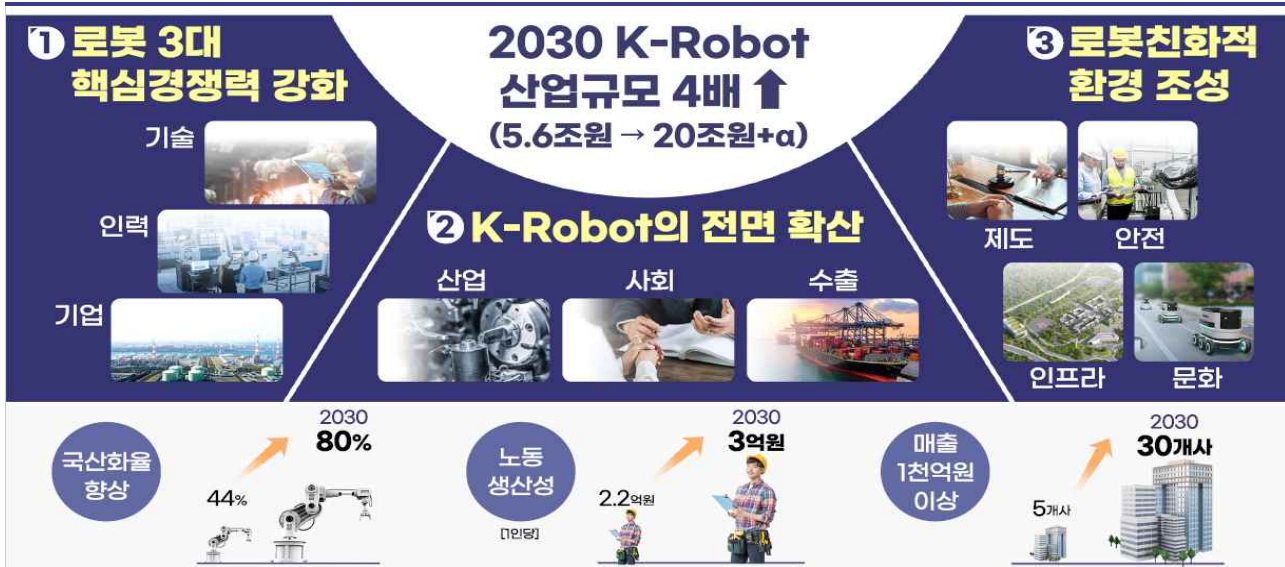
◇ 서비스 지원 계획

- ▶ **실환경** : 시범지원('27) → 정식서비스('28~) → 신규환경 구축('29~)
- ▶ **가상환경** : 시범지원('27) → 정식서비스('28~) → 기능 확대('29~)
- ▶ **데이터** : 시범지원('27~'28) → 정식서비스('29~) → 데이터센터 고도화('30~)
- ▶ **BM인증** : 시범인증('27~'28) → 정식서비스('29~) → 국제표준화('30~)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비전

글로벌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K-로봇경제』 실현



추진과제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강력한 민관협력 체계 가동
(‘30년까지 민관합동 총 3조원+a 투자)

1 로봇 3대 핵심 경쟁력 강화

- ① [기술] 8대 핵심기술 확보(H/W 5, S/W 3)
- ② [인력] AI·SW 등 핵심인력 15,000명 양성
- ③ [기업] 로봇 전문기업 150개 육성(Robot Speciality)

2 K-Robot 시장의 글로벌 진출 확대

- ① [국내시장 창출] 제조·서비스업에 ‘30년까지 총 100만대 보급
- ② [해외시장 창출] 해외인증지원, ODA 연계, 국제 R&D 지원

3 로봇산업 친화적 인프라 기반 구축

- ① [제도] 『지능형로봇법』 전면 개편, 시장진입 규제 혁신
- ② [안전] 로봇 특화형 보험제 신설 등 안전망 체계 강화
- ③ [사업화] 시장진입을 위한 실증테스트 설비 신설
- ④ [문화] 로봇 확산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

2-①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개요

□ 동성로의 특징점

- 대구 동성로는 대구읍성이라는 역사성 위에 쇼핑, 숙박, 먹거리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독보적인 공간임.
- 대구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동성로는 다양한 관광 관련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구 최대의 유동인구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이며, 화장품 상가와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특화골목이 산재하고 있어 젊은 층이 즐겨 찾고 있는 곳임
- 근대골목과 먹거리, 쇼핑 등의 특화골목이 산재해 있어 대구를 대표하는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글로벌 로컬형 쇼핑문화 다운타운의 동성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 수단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함.

□ 동성로 현황

- 위치/규모 : 동성로2길 24 일대 / 298필지 37,998.3m² 583개 점포
- 상인조직 : 동성로상점가상인회(등록 2009. 3.25. 상인회장 이준호)
- 주고객층 : 10 ~ 30대 젊은 청년층 위주
- 방문객수 : 주중 2만 5천명/일, 주말 4만명/일
- 동성로 주요시설 현황
 - 1) 관광안내소 (5개소)
 - 계산예가·쌔지공원·동성로 관광안내소, 약령시·김광석길 관광통역안내소
 - 2) 숙박시설 (25개소) : 관광호텔 5, 일반호텔 5, 한옥체험업 12, 호스텔 3
 - (관광호텔) 엘디스리젠트 호텔, 토요코인 동성로점, 노블스테이, 리버틴, 유니온
 - 3) 휴양오락 및 접객시설 (22개소) : 박물관 6, 유원시설 9, 공연장 7
 - (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약령시한의약박물관, 북성로공구박물관, 향촌문화관 등
 - (유원시설) (주)스파크랜드, 야사노 대구동성로점, 고담카페 등
 - (공연장) 동아아트홀, 송죽씨어터, 동성로야외무대, 문화예술전용극장 등
 - 4) 상가시설 (8개소) : 재래시장 2, 약령시, 백화점 2, 쇼핑거리 4
 - 교동시장, 염매시장, 현대백화점, 동아쇼핑, 교동귀금속거리, 대구패션주얼리 등

□ 동성로 이벤트 및 투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축제, 행사 개최

- 동성로 축제(5월), 약령시 한방문화 축제(5월), 중앙로 트리문화 빛 축제(12월) 등

○ 체험프로그램 운영

- (대구문화시티투어) 동성로 투어 및 북성로~근대골목 투어

* 동성로 : 공간독립 - 스파크 - 성수미술관 - 송죽씨어터 등 소극장

* 북성로 ~ 근대골목 : 대구콘서트하우스 ~ 대구문학관 ~ 근대역사관

- (한의약박물관) 한방족욕체험, 한방비누만들기, 한방미스트만들기, 전통의상체험

* 문체부 국비 3억원 지원으로 전시장에 실감체험관 조성 예정

○ 주변 지역과 연계한 근대골목 및 명물골목투어 프로그램 운영

- (근대골목투어) 경상감영달성길, 근대문화골목, 패션한방길, 삼덕봉산문화길 등

* 「근대로의 여행」조달청 여행상품 등록, 도보 1시간 40분 ~ 3시간

- (명물골목투어) 교동귀금속, 교동전자, 북성공구, 향촌수제화골목 등

□ 동성로 관광특구 위치도



2-4 지구촌 새마을운동 (새마을 ODA)

1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 '09년부터 새마을ODA 추진

□ 추진배경

- 국제사회의 기대와 개발협력 수요 확대, 차별화된 '한국형 ODA 브랜드'로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필요
- 우리의 성공적인 발전경험을 활용, 맞춤형 새마을지도자 양성과 시범마을 조성 등 개도국 자립역량 개발 지원

□ 주요내용

- ① (외국인 초청연수) 개도국 주민·공무원 대상, 새마을 의식개혁 및 기술 교육
- 국가 및 지역 맞춤형 새마을지도자 양성(의식개혁, 자립역량 강화)
 - 현지 정부 및 협력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적정 기술 발굴 교육

▶ ('24년) 45개국 650명 초청 및 현지연수 계획 / ('09~'23년) 74개국 13,329명 연수

《 최근 5년간 새마을 초청연수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사업비	1,070	1,236	1,468	2,100	2,047

- ② (시범마을 조성) 주민자립형 모델로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 (조성초기) 환경개선을 통한 의식개혁 기반 조성(지붕개량, 마을회관 건립 등)
 - (여건성숙) 소득증대,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가축은행, 공동농장, 마을금고 등)

▶ ('24년) 13개국 56개 마을 / ('09~'23년) 22개국 104개 마을 조성

《 최근 5년간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사업비	890	892	961	1,066	1,446

- ③ (리더십 교류협력)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 회원국과 연계한 'SGL 국장급 회의'(9월)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9월)

* '16년 창설된 국가별 새마을운동 조직 간의 비정부연합체로 46개국 가입(우리나라 의장국)

- 2024년 예산: 4,064백만원(초청연수 2,047/시범마을 1,815/교류협력 202)

□ 사업개요

- (추진목적) 주민들이 직접 마을정비사업을 수행(계획·추진·관리)하는 주민자립형 모델로써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 증대
- (대상국가) 13개국(신규 탄자니아, 타지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온두라스 등 4개국 포함)
- (사업내용)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환경개선*, 소득 증대사업** 등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빈곤퇴치, 지속가능 자립기반 구축 지원

* 마을안길 포장, 마을회관 건립, 지붕 개량 등 ** 가축은행, 공동농장, 마을금고 운영 등

□ '24년 예산 : 1,446백만원

<연도별 시범마을 조성 예산>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예 산 (백만원)	726	1,042	1,135	1,135	1,135	1,224	1,329	1,446

구 분	중점육성마을	지속관리마을·자생마을
대상국가 (마을수)	키르기스스탄(4), 캄보디아(4), 동티모르(4), 도미니카공화국(4), 라오스(4), 온두라스(4), 피지(3), 우간다(7), 부룬디(6), 잠비아(4), 탄자니아(4), 타지키스탄(4), 파푸아뉴기니(4)	캄보디아(1), 우간다(2), 부룬디(1), 라오스(1), 피지(1)
분류기준	마을총회, 새마을지도자 등 기본적 추진체계를 갖춘 시범마을	시범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마을과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마을
주요사업	· 주민의식교육 · 마을금고 조성 · 환경개선사업 (공동우물, 부엌개량) · 소득증대사업 (양계, 비닐하우스, 특용작물 등)	· 새마을워크숍 · 새마을회 운영 · 현장지도·기술교육
지원금액	(기존) 마을별 약 23,000천원 (신규) 마을별 약 25,000천원	국가별 약11,000천원
합 계	13국 56개 마을	5개국 6개 마을

□ 사업개요

- (추진목적) 한국의 새마을운동 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여 개도국 농촌지역의 빈곤을 감소와 현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연수대상) 신규 5개국(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수단, 중아공, 니카라과) 포함 10개국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마을주민 등
- (시행기관) 새마을운동중앙회(우리부 유관단체) 및 새마을 연수 전문기관(공모 선정, 새마을세계화재단(경북)·현대경제연구원·영남대 등)

□ '24년 예산 : 2,547백만원

<연도별 새마을 초청연수 사업비>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예 산 (백만원)	1,820	1,734	1,592	1,546	1,686	1,887	2,564	2,547

□ 교육과정 및 대상

- (고위정책자 과정) 장·차관급(고위급 회담 포함) 및 실·국장급 등 정책결정자
- (관리자 과정)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과장 등 중간관리자
- (실무자 과정) 지방정부 일선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등 사업 담당자
- (국가별 통합과정) 국가별 중앙부처 국·과장급, 지방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등

□ 교육내용

- (이론교육) 새마을운동 개요 및 국제적 위상 소개, 새마을운동 추진체계와 추진전략, 사업추진방법 등 실천전략
- (현장견학) 이론교육과 연계하여, 한국의 농촌마을, 농수산물유통센터, 농업기술원 등 현장 방문 및 유관기관 면담 등
- (분임토의) 이론교육 내용 및 현장 견학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마을별 액션플랜 수립 및 공유(필요시 세미나 실시)

□ 우간다 키사랄웨 마을



[새마을 교육]



[도로정비 전]



[도로정비 후]



[수박 재배]

- 키사랄웨 마을은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한 외부와의 접근성 부족, 낮은 소득으로 인한 식량 부족 및 주민들의 만성적인 의욕 저하 등에 노출
- 새마을교육과 함께 새마을 지도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간다 자체 새마을회를 중심으로 한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보공유와 현지정부와의 협업 등을 통해 마을정비 및 여러 소득 사업을 추진
- 새마을교육을 통한 마을정비 사업으로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마을 주민들의 만성적인 빈곤 탈출에 기여

□ 온두라스 쿠알리 · 팔미찰 카르멘 마을



[새마을 교육]



[식수사업 전]



[식수사업 후]



[생수제품 생산]

- 쿠알리 마을 주민들은 매일 2km를 이동해서 물을 얻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마을교육시 취수원 마련, 파이프 연결 등을 담은 실행 계획을 만들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식수를 안정적으로 확보
- 팔미찰 카르멘 마을은 새마을교육을 통해 식수사업을 소득증대 사업으로 연계, 정수장치 설치 및 정부 인증을 거친 생수 판매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수익증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새마을교육은 민주적인 마을 사업의 도출, 주민간 상호 협력 등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 등 활기차고 변화된 마을 조성

2-⑤ 지역 공교육 경쟁력 강화

1

자율형 공립고 2.0

□ 주요내용

- (개념) 농산어촌, 원도심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 자율적 교육모델 운영을 통한 교육혁신을 실현하는 학교
- (운영방식)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및 교육혁신가 등과 학교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적인 교육모델 운영
 - ①예산 및 운영, ②학사·교육과정, ③교원·학생선발, ④현장규제 발굴·혁신 등 다양한 지원 및 특례를 통해 자율적 교육모델 지원

□ 2024년 선정 결과 : 40개교 선정

- (신청결과) 총 9개 시·도 40개 학교가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5개교*를 제외한 35개교가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계획 제출
 - * 군포 중앙고(경기), 상동고(강원), 청주고·청원고(충북), 여수고(전남)
- (선정평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거쳐, 신청한 40개교 전체 선정(2.29)

< 지역별 자율형 공립고 2.0 신청 학교 현황 >

지역	학교명	지역	학교명
부산(2)	장안고, 경남고	충북(4)	청주고, 청원고, 충주고, 제천제일고
대구(5)	포산고, 강동고, 경북여고, 다사고, 군위고	충남(3)	금산여고, 공주고, 서산대산고
광주(5)	수완고, 상일여고, 광주고, 전남고, 광주제일고	전남(11)	나주고, 봉황고, 매성고, 목포고, 여수고, 도초고, 영암고, 순천고, 남악고, 광양고, 해남고
경기(2)	군포 중앙고, 파주 윤정고		
강원(3)	원주고, 춘천고, 상동고	경북(5)	포항고, 포항여고, 울릉고, 구미고, 안동여고

- (지원계획) 협약내용 보완, 교육과정 모델 구체화 등 학교의 자율적 교육혁신을 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실시(3월~)
 - 컨설팅 과정에서 발굴한 규제혁신 요구사항은 (가칭)「교육발전특구 특례법」 발의 시 반영(~6월) 및 필요 시 연내 제도개선 추진

□ IB 프로그램 개념과 구성

- (개념)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BO)에서 국가 간·학생 간 이동, 대학 진학(학점인정) 등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
- (구성) 초등 프로그램(PYP), 중등 프로그램(MYP), 고교 학위 프로그램(DP), 진로연계 고교 프로그램(CP) 등 4개 과정으로 구분
 - ※ DP 및 CP 이수 시 세계 여러 대학에서 입학성적으로 인정
- (특징)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협력위주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학교 교육 체제
 - 프로젝트와 토의·토론 위주 수업 및 서·논술형 평가 등을 통해 문제해결력 및 사고력 신장 강조

IB 프로그램 주요 특징

- ❖ (교원 연수 체계화) BO 주관 양질의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운영, 리더교사(IBEN)·채점관(Examiner) 양성
- ❖ (학습자 맞춤 교육과정) 6개 교과 그룹에서 과목과 수준(standard level, higher level)을 선택 수강(150, 240시간)
 - * ①언어와 문학, ②영어, ③사회(역사·경제), ④과학(생명과학, 화학, 물리), ⑤수학, ⑥예술
- ❖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연계한 문제해결력 향상 수업과 상시 피드백
- ❖ (역량 중심 절대평가) 구술 평가, 에세이 작성, 연구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서논술형 평가 등
- ❖ (국제적 공인 평가 시스템) 내부평가(학교평가→IB조정), 외부평가(BO 채점관 평가)로 신뢰성 확보

□ IB 프로그램 국내 적용 형태 및 평가

- (IB 국내 적용 형태) 초·중·고교 희망학교에 IB 교육과정 요소 반영
 - (초·중학교) 국가수준 교육과정 틀 안에서 IB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주제를 연계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운영
 - (고등학교)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IB 관련 과목을 '고시 외 과목'으로 교육감 승인 후 편성·운영
- (IB 평가) 프로젝트 및 토의·토론 수업과 연계된 평가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IB가 개발한 성취기준 및 채점기준의 지침에 따라 평가

□ IB 프로그램 인증 절차

- (소요 기간) 보통 2년 6개월 ~ 3년 정도 소요
- (내용) PYP, MYP 교과사에 대해 IBO의 수업·평가 연수, 컨설팅 등 진행
※ DP의 경우 DP 교과 담당 및 핵심과정 담당 교사만 해당

인증 절차		필수 요구사항
관심 학교	School Information Form IB본부에 제출	1. IB 프로그램 도입 타당성 검토 - 교사, 학생, 학부모, 운영위원회 등 의견수렴 - 학교 철학 및 비전과 IB 철학 및 비전 검토 등 2. 학교장 또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IB 워크숍 이수
	IB본부에 후보학교 신청	후보학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통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작성함)
후보 학교	(IB본부)후보학교 승인 (개별학교)IB본부 요구사항 준수	1. 전 교원(DP 교과담당) IB 워크숍(Cat 1) 이수 2. 각종 IB 요구사항 반영
	IB본부 컨설턴트 방문	
	IB본부에 인증학교 신청	1. 코디네이터 중심 전문학습공동체 정기적 운영 2. (PYP, MYP) 후보학교 단계부터 IB 수업 설계 및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수정·보완 3. (DP) 교과별 2년 수업계획 및 pre-DP 설계
	IB본부 인증심사 방문	
인증 학교	IB본부 인증 결정	
	IB 프로그램 운영 (5년마다 IB 월드스쿨 재평가)	1. 학년별·교과별 전문 학습 공동체 상시 운영 및 운영 과정 및 결과물 기록(재평가 준비) 2. 프로그램 혹은 교과 단위 개정될 때 마다 관련 IB 필수 워크숍 이수

2-6 경북대병원 현황

□ 일반 현황

- (종별) 상급종합병원
- (병상 수) 본원 900병상(2023년도 기준)
- (환자 수) 2023년 방문환자 1,013,612명
- (인력 현황) 전문의 216명, 전공의 193명

□ 경북대병원 수행 주요 필수의료 센터

① 권역응급의료센터

- (역할)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제공, 재난거점병원 역할 수행,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을 제공하는 권역 내 최종응급진료 기관
- (시설 및 인력) 병상 34병상, 응급실 인력(전문의 10명, 전공의 8명, 간호사 57명, 응급구조사 5명 등)

② 권역외상센터

- (역할) 권역 내 발생한 중증외상환자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 및 치료를 위해 특화된 외상진료체계를 구축 운영
- (시설 및 인력) 외상병상 40병상, TICU 20병상, 외상소생구역 8병상, 인력(전문의 8명, 외상코디네이터 3명, 행정직 1명)

③ 권역심뇌혈관센터

- (역할) 심뇌혈관질환센터 내 각 센터 간 및 권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및 조정
- (시설 및 인력) 심혈관 중환자실 23병상, 뇌졸중 집중치료실 10병상 등, 인력(전문의 28명, 간호사 45명 등)

③-①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에 따라 달라지는 점

구분		前 도립공원	국립공원 지정 후
생태 서비스	프로그램	○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없음	○ 전문 자연환경 해설사 배치 및 대상별·주제별 해설프로그램 운영
	공원시설	○ 공원시설 114개 * 화장실, 주차장 등 기초시설 위주이고, 상태 노후 ** 미설치 시설 등 12개소 폐지 예정	○ 탐방객 이용 편의 등을 위해 탐방 인프라* 확충 * 노후 시설 정비 및 친환경 야영장, 체험학습장, 숲 체험시설 등 신설
	안전관리	○ 연간 66건 발생('19년) * 재난 예경보시설 등 미흡	○ 안전사고 감소(국립공원 평균 6.2건) * 안전관리 전문인력과 장비 운영 ○ 위험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설치
	주민지원	○ 별도 주민지원사업 없음	○ 마을환경 개선, 명품마을 조성(떡정 마을)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 고용(국립공원지킴이 등)
브랜드 가치	탐방객 수	○ 최근 3년 평균 358만명	○ 약 458만명 예상(28% 증)
	경제적 가치	○ 보전·이용가치 2,754억원 * 팔공산도립공원 경제적 가치평가 연구	○ 보전·이용가치 5,233억원(1.9배* 증) *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전후 자료 적용
자연 문화 자산 보전	자연자원 조사	○ 간헐적 시행('14, '19~'21년)	○ 매년 공원자원 모니터링 및 5년마다 자연자원조사
	멸종위기종 관리	○ 별도 관리체계 없음	○ 주기적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및 서식지 보호 정책 추진
	훼손지 복구	○ 별도 관리대책 없음(간헐적 정비) * 탐방로(126.6km) 중 약 19km(15%) 훼손 추정 * 훼손지역 약 28개소	○ 전수조사를 거쳐 훼손 탐방로 및 훼손지역 복구
	사유지 매수	○ 사유지 매수 없음 * 사유지 비율 54%(67.7km ²)	○ 지정 후 5년 이내 사유지 집중 매수 (사유지 비율 20% 수준으로 조정 추진)
	문화지구	○ 동화사 등 문화유산지구 지정 * 사찰 정비사업 지원 등 한계	○ 은해사 등을 추가 지정하고, 사찰 환경개선 등 정비·지원사업 추진
관리 체계	조직	○ 능선 따라 대구, 경북 관리 이원화 * 대구/경북 공원위원회 별도 설치	○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통합관리
	인력	○ 대구·경북 94명	○ 국립공원공단 인력 94+@ 투입
	예산	○ 대구·경북 지방비 99억원(인건비 포함)	○ 안정적인 국비 투입

③-② 대구 서·북부 악취문제 해소

1

대구 서구 도심산단 대기개선 지원사업 추진 개요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지역여건) 서대구역세권 개발로 대구의 새로운 중심권으로 부각
- (환경여건) 염색산단, 서대구산단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인근 주거지역 영향 및 악취 민원 야기
 - * 염색산단, 서대구산단 입주업체 중 45%가 섬유염색업종

○ 사업기간 : 2019 ~ 2024

○ 지원실적 : 135개 사업장, 534억원(국비 296, 지방비 238, 자부담 10% 별도)

○ 사업내용

- 서구 소재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시 설치비 지원
- 서구소재 기 지원사업장 중 백연저감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백연저감시설 추가지원

□ 그간 추진사항

○ '19년~'20년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지원실적) '19년 13개소(36억), '20년 17개소(62억)

○ '21. 9.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MOU 체결

- * 대구광역시, 대구지방환경청, 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 '21년 ~ 현재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집중 지원 확대

- (지원실적) '21년 34개소(134억), '22년 37개소(169억), '23년 34개소(133억)

□ 추진성과

- 지원 前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7% 저감, 백연 및 악취 개선에 기여
- 도심산단 주변 대기질 개선(도시대기자동측정소) : 초미세먼지 24% 감소

□ 향후계획

-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속), 방지시설 사후관리 및 사업추진 성과분석

2

악취배출 사업장 악취 저감 기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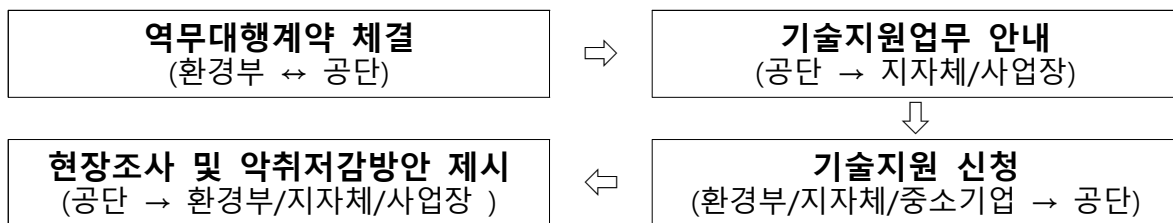
□ 목 적 : 악취관리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에 악취저감을 위한 컨설팅 및 개선방안 제시

□ 법적근거 : 악취방지법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악취방지법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9조(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 수행

□ 수행절차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

- 자발적인 악취 관리가 어려운 사업장
-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

□ 지원내용

- (현황조사) 악취발생 공정, 포집설비, 밀폐관리 현황 및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 조사
- (악취측정) 복합악취 등을 측정하여 악취저감 효율 등을 평가
- (개선방안) 생산공정,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 개선 등을 수록한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보고서 제공(지자체 및 사업장)

□ 추진실적 : 매년 약 290개소 기술지원('24년 예산 : 765백만원)

□ 단계별 사업내용

- (1단계) ICT 기반 실시간 악취자료 수집 및 분석·예측 체계 구축(5개소)
 - 시민 악취체감도 데이터 수집, 실시간 데이터 전송설비 및 서버 시스템 구축
 - 악취취약지역 맨홀 내 악취측정기(황화수소) 및 악취저감장치 설치
- (2단계) 하수 악취 스마트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악취 관리
 - 실시간 맨홀 내 악취(황화수소) 측정을 통한 데이터 축적, 분석으로 악취발생구간의 악취저감장치 연계 가동
 - 하수 악취 데이터를 맵핑하여 악취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체계 마련

